

[성주간] 성지주일 수난복음 다해(짧은 복음)

루카 23, 1 - 49

(해설자)



루 카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.

(해설자)



그 때 에 백 성 의 원 로 단, 곧 수 석 사 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이



일 어 나 예 수 님 을 빌 라 도 앞 으 로 끌 고 갔 다. 그 리 고 예 수 님

(다른사람)



을 고 소 하 기 시 작 하 였 다. ["우 리 는 이 자 가 우 리 민 족 을 선 동



한 다 는 사 실 을 아 라 뵈 습 니 다. 황 제 에 게 세 금 을 내 지 못 하 게

(해설자)



막 고 자 신 을 메 시 아 곧 임 금 이 라 고 말 합 니 다."] 빌 라 도 가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

예 수 님 께 물 었 다. ["당 신 이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?"] 예 수 님

(그리스도)

(해설자)



께 서 대 답 하 셧 다. ["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."] 빌 라 도 가

(다른사람)



수 석 사 제 들 과 군 중 에 게 말 하 였 다. ["나 는 이 사 람 에 게 서

(해설자)
아 무 죄 목 도 찾 지 못 하 겠 소."] 그 러 나 그 들 은 완 강 히 주 장

(다른사람)
하 였 다. ["이 자 는 갈 린 레 아 에 서 시 작 하 여 이 곳 에 이 르 기

까 지, 온 유 다 곳 곳 에 서 백 성 을 가르 치 며 선 동 하

(해설자)
고 있 습 니 다."] 이 말 을 들 은 빌 라 도 는 이 사 람 이 갈 린 레

아 사 람 이 냐 고 문 더 니, 예 수 님 께 서 헤 로 데 의 관 할 에 속 한

것 을 알 고 그 분 을 헤 로 데 에 게 보 냈 다. 그 무 렵 헤 로 데 도

예 루 살 렘 에 있 었 다. 헤 로 데 는 예 수 님 을 보 고 매 우 기 빠

하 였 다. 예 수 님 의 소 문 을 들 고 오 래 전 부 터 그 분 을 보 고

싫 어 하 였 을 뿐 만 아 니 라, 그 분 께 서 일 으 키 시 는 어 떤 표 징

이 라 도 보 기 를 기 대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. 그 래 서 헤 로 데 가



이것저것물었지만,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대답도하지않으



셨다.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서서 예수



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. 헤로도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



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,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



도에게 돌려보냈다. 전에는 서로 원수로지내던 헤로도



와 빌라도가 바로 그 날에서로 친구가 되었다. 빌라도는



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

(다른사람)



말하였다. ["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



에게 끌고 왔는데, 보다 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



보았지만,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

나도 찾지 못하였소.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

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. 보다 시 피 이 사

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.

(해설자)
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." 수석 사제

(회중)
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. ["그자는

(해설자)
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."] 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

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.

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

기 하였지만,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.

(회중)
["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"]

(해설자) (다른사람)

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. ["도대체 이 사람이

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? 나는 이 사람에게서

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. 그래서

(해설자)

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."] 그러자 그들이

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

하는데,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. 마침내 빌라도는

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결정하였다. 그리하여 그는

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

대로 풀어 주고,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 주

었다.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, 시골에서 오고 있던



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



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.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



따라갔다.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



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.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

(그리스도)



돌아서서 이르셨다. ["예루살렘의 딸들아, 나 때문에 울지



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. 보라, '아이를



낳지 못하는 여자, 아이를 배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



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!'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.



그때에 사람들은 '산들에게 '우리위로 무너져 내려라.' 하고



언덕들에게 '우리를 덮어다오.' 할 것이다. 푸른 나무가



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?"]

(해설자)



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



갔다. '해골'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



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,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



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.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

(그리스도)



셨다. ["아버지,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. 저들은 자기

(해설자)



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."]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



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겔옷을 나누어 가졌다.



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.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.

(다른사람)



["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, 정말 하느



님의 메시아,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 해 보라지.”]

(해설자)



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. 그들은 예수님께다가

(다른사람)



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. [“네가 유대인들의 임금 이

(해설자)



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 해 보아라.”]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



‘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.’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.



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.

(다른사람)



[“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?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

(해설자)



해 보시오.”]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.

(다른사람)



[“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?



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 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,

(해설자)
이 분 은 아 무 런 잘 못 도 하 지 않 으 셧다."] 그 러 고 나 서 그 죄 수

(다른사람)
가 예 수 님 께 간 청 하 였 다. ["예 수 님, 선 생 님 의 나 라 에 들 어

(해설자)
가 실 때 저 를 기 억 해 주 십 시 오."] 예 수 님 께 서 그 에 게 이 르

(그리스도)
셨 다. ["내 가 진 실 로 너 에 게 말 한 다. 너 는 오 늘 나 와 함 께

(해설자)
낙 원 에 있 을 것 이 다."] 낮 열 두 시 즘 되 자 어 둠 이 온 땅 에

덮 여 오 후 세 시 까 지 계 속 되 었 다. 해 가 어 두 워 진 것 이 다.

그 때 에 성 전 휘 장 한 가 운 데 가 두 갈 래 로 찢 어 졌 다.

(그리스도)
그 리 고 예 수 님 께 서 큰 소 리 로 외 치 셧다. ["아 버 지, '제 영 을

(해설자)
아 버 지 손 에 맡 기 니 다."] 예 수 님 께 서 는 이 말 씀 을 하 시



[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]

